

『퇴직 강요』에 우는 女性 근로자

결혼을 준비하는 그녀... 사표 쓰세요

『출산휴가를 잦다 왔다고 사표를 쓰라니요. 임신 출산휴가는 법에도 있는 모 있다.』
『모성보호』라는 말이다. 그 녀고용법에는 조기정년의 모성보호, 집에 들어 년이나 결혼 임신 출산시

지방전출 대기발령 등 단골수법

「고용평등법」死文化 여성단체에 百여건 고발

앉아 있던 남편이 보호 해줄 것 아니냐. 사표쓰세요』
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 최하는 「91 여성주간」(9월 13일 행사) 첫날에 공연된 춘극대사의 일부분이다.

여성만의 조기정년, 결혼 출산을 이유로한 퇴직강요 등 전근대적인 여성차별이 채용시 결혼퇴직사서를 받는다거나 시급 및 단체협 약에 불응을 주장하는 등 직접적인 차별은 줄고 간접적인 차별이 동원된다 는 것.

지방전출 또는 대기발령 을 내거나 출퇴근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는 등 「人事經營權」의 외피를 쓴 압력 이 주로 이용된다. 주변사 통해 호텔 여행사 등으로 부보조원 李光奎씨등 4명은 지난 8월말 28세 조기정년 제에 걸려 부당해고를 당 하는 등 현재 여성단체들에 접수돼 있는 것만도 1백 50 건이 넘는다.

〈申然琇기자〉



성주간행사」중 여성단체 회원들이 벌이는 춘극. 결혼을 이유로한 퇴직강요 등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풍자하고 있다.

또 서울의 J대학 사무